

	<h1>보도 자료</h1> <h2>(Press Release)</h2>	 <b>자본시장연구원</b> <small>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small>		
				

배포일시	2025년 9월 11일	보도일시	2025년 9월 11일(즉시)
사진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쪽수	2쪽(본문 2)
담당자	유민상 팀장(02-6959-8084/media@kdaxa.org)		

## DAXA-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 발족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 '정책 초석' 다진다!

- 국내외 제도 동향을 담은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 발간
- 앞으로도 연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시장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그 첫 성과물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크게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신경희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발간물에서는 지난 7월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GENIUS법의 의의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편집일 9.4일 기준)된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법률안들을 상세히 분석해 국내외 제도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DAXA 홈페이지 및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 발족을 통해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공약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연구 및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 시장 참여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심층 분석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세완 원장은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이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식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DAXA 오세진 의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은 DAXA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해 수행하는 첫 번째 연구 및 조사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며, “자본시장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계의 전문성과 시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결합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